

이산화탄소 R&D에 1727억원 투입

교과부, 이산화탄소 연구개발센터 설립 ... 1만톤급 CSS 기술 실증

이산화탄소 연구개발센터가 설립된다.

교육과학기술부는 1월11일 대전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<한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(CCS) 연구개발센터>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고 1월10일 발표했다.



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기술 개념도

센터는 CSS 원천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22일 교과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,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·전환·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총 1727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CCS 기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.

구체적인 목표로 ▲4가지 종류 이상의 3세대 이산화탄소 포집 원천기술 개발 ▲국내 최초 1만톤급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연계기술 실증 ▲2가지 이상의 대량배출원에 적용 가능한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개발 등을 설정했다.

연구개발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 총 23개 기관의 CCS 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관련기업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10>